http://dx.doi.org/10.35704/YJH.58.10

세네갈 독립 이후 셍고르의 시 세계: 『우기의 편지 Lettres d'Hivernage』를 중심으로

황미영*

- 목 차 -

Ⅰ. 서론
Ⅱ. 우기의 찬가
1. 연서에 대하여
2. 일상의 시
3. 되찾은 포펭긴에서
Ⅲ. 우기 이후
Ⅳ. 결론

|국문초록|

1950년대에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독립을 맞이하자, 네그리튀드 문학의 선구자인 셍고르도 조국인 세네갈로 돌아간다. 그는 시집 『야상곡』(1961)을 제외하고는, 주로 정치 에세이나 문학 평론을 집필하면서 오랫동안 정치가의 길을 걷게 된다. 그의 나이 70세가 다 되어서야 그는 오랜 정치 생활을 끝내고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온다.

본 연구는 셍고르가 말년에 출간한 『우기의 편지』(1973)의 시 세계를

*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강사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집은 그가 아프리카 특유의 우기를 피해 프랑스에 머무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탕을 이룬다. 무엇보다도, 이 시집의 특징은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성'은 이전의 작품에서는 이상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작품에서는 현실적 삶을 환기하는 연인 이미지가 된다. 그는 아내의 부재로 인해 번뇌에 빠지다가도 그녀에게서 온 연서를 읽어가며 달콤한 상상 세계로 빠져든다. 그 결과, 이 시집은 전체적으로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한다. 사실, 그는 일생을 공적인 의무감과 동시에 시적 영감의 열망에 휩싸여 보냈다. 그리고 '유년의 왕국'과 '잃어버린 아프리카'는 그의 시적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는 고단한 업무를 마치고 휴식의 공간인 포펭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고레섬과 평화로운 해안의 마을을 내려다본다. 그곳은 과거에 강대국의 식민지였고, 시인 셍고르는 그런 조국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가슴 아파한다. 그는 비가 그친 뒤에 드러난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모습에 열광한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와의 재회를 꿈꾸고 홀로 수영을 하고 명상에 빠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무엇보다, 이 시집은 셍고르적인 교감, 즉 인간과 우주의 통일성을 가로지르는 신비한 관계를 드러낸다. 우기는 더 이상 시련이 아니다. 그의 펜 아래, 아프리카는 시의 언어로 재창조되며 아름다운 우기 속의 두 부부는 백인도 흑인도 아닌 사랑하는 두 연인일 뿐이다. 시인 셍고르는 단순하고 심오한 감성으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행복한 시인으로 남는다.

주제어 : 셍고르, 우기, 편지, 아프리카, 포펭긴.

Ⅰ. 서론

시인 레오폴 세다르 셍고르 Léopold Sédar Senghor 는 1930년대 파리의 한복판에서 흑인 동료들과 함께 네그리튀드 운동을 펼쳤다. 1960년대를 전후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가 앞 다투어 독립을 쟁취하자,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 세네갈의 초대 대통령직을 시작으로 정치가의 길을 걷는다. 시인-정치가였던 그는 1961년에 『야상곡 Nocturnes』을 발표한 이후로는 주로 정치 에세이나 대담집, 평론을 집필하다가 10여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우기의 편지 Lettres d'Hivernage』를 출간한다.

본 연구는 이 작품이 네그리튀드 색채가 지배적이던 전작(前作)과는 상이한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독특한 제목이 붙여진 이 작품은 아내 콜레트 위베르 Colette Hubert 가 세네갈 특유의 기후인 '우기'를 피해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주고받은 서신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서른 편의 시로 이루어진 『우기의 편지』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구술된다. 이 작품에서는 현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순하고 평범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현실을 둘러싼 일상을 이야기해나간다. 반면에, 이 시집은 평범한 연서를 뛰어넘어 고도의 상징성을 갖추고 있다. 여러 편의 시에서, 시인은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상상 세계에 빠져들거나 지난 날 유럽에서 생활하던 청춘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시집은 그의 전 작품에 다양성을 더한다. 그것은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도 시의 탐색을 지속하였고 그 성과가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우선, Ⅰ장은 독특한 제목이 붙여진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아내의 연서가 불러일으킨 시인의 상상세계를 들여다 볼 것이다. 이 작품에서 '여성'은 현실의 메타포를 갖는다. 아내의 부재로 괴로워하던 시인은 그녀가 보낸 편지에서 위안을 받고 산책과 명상을 통해 자신

의 삶을 성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인은 휴식처 포펭긴 Popenguine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리는 것을 잊지 않는다. Ⅱ장은 우기 이후의 삶과 희망을 들여다 볼 것이다. '우기'는 그의 삶에서 고난이자 희망을 상징한다. 시인은 우기 이후 돌아올 연인 콜레트를 기다리며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 노래한다. 그는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멈추었으나 그의 시적 열망은 『우기의 편지』를 '우기의 찬가'이자 '아프리카의 찬가'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선행연구로는 『우기의 편지』를 주제적으로 접근하는 다카르대학의 릴리안 케스트루트 Lyliane Kesteloot 와, 비평적 분석을 내놓은 뢰스 드 위베르 Leusse de Hubert 가 있다. 두 연구가는 『우기의 편지』에 독특한 위상을 두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시집은 몇몇 연구가를 제외한다면, 셍고르의 전집 중에서 비교적 덜 연구된 작품이다. 셍고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네그리튀드와 관련된 주제에서 다루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가 작가로서의 원숙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말해준다. 더욱이 국내외 정세가 안정되면서 이전의 그의 작품이 보여주던 정치적이거나 현실참여적인 특성은 보다 섬세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이에 대해서는 초기의 흑인문학 연구가 느카사마 Nkashama[1] 가 독립 이후의 흑인시의 변화에 일찍이 주목한 바와 일치한다. 또한 셍고르의 친구이자 그의 작품에 참여하기도 한 아르망 기베르 Armand Guibert는 셍고르의 고뇌와 작품 간의 관계에 대해 되짚으면서 작품과 시대, 그리고 작가 사이의 인과성을 돕고 있다. 여기에 앙드레 쥘리엥 므뱀 André Julien Mbem 이 여러 흑인 작가의 시에 대해 현대적 분석을 내놓

1) 느카사마 Nkashama 는 *Comprendre la littérature africaine écrite en langue française*(Saint-Paul, 1979)에서 네그리튀드 문학이 태동한 시점부터 6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흑인문학을 시와 소설, 연극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은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Ⅱ. 우기의 찬가

1. 연서에 대하여

셍고르는 네그리튀드[2] 작가 중에서도 '사랑'에 관해 많은 시를 남긴 작가에 속한다. 그의 시 세계에서 '사랑'은 주로 여성과 조국 아프리카, 때로는 어머니-대지를 향한다. 이는 저항문학 작가의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피식민지 국가가 독립을 획득하자, 네그리튀드 문학의 열기는 서서히 가라앉는다. 셍고르도 세네갈 독립을 전후로 시 작업보다는 에세이 *Liberté* 연작을 출간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글쓰기를 했다. 그의 나이 70세를 바라보며 완성한 마지막 시집 『우기의 편지』[3]는 저항시집에서 탈피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사실, 셍고르는 그의 전체적인 작품[4]에서 보자면, "서신왕래 l'échange épistolaire"[5]의 형식을 자주

---

2) cf. 네그리튀드는 흑인성의 모든 특성과 운명이 함축적으로 집약된 어휘였다. 셍고르는 프랑스의 1848년 혁명 100주년 기념에 부합할 만한 책의 출간을 부탁받는다.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흑인 인권에 앞장선 네그리튀드 작가들, 예를 들어 비라고 디오프 Birago Diop, 다비드 디오프 David Diop를 비롯한 16명의 작가에게서 작품을 의뢰받아 한권으로 묶어 발간한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Anthologie de la nouvelle poésie nègre et malgache de langue française*(P.U.F., 1948)이다. 이 책이 출판되면서 네그리튀드 운동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Léopold Sédar Senghor, *Anthologie de la nouvelle poésie nègre et malgache de langue française*, P.U.F., 1948, pp.Ⅶ-Ⅷ 참조.

3) 『우기의 편지』는 조국 러시아를 떠나 스케치를 통해 여성과 꿈과 몽환적인 세계를 그리면서 평생을 고국에 돌아가고자 했던 마르크 샤갈의 채색삽화로 1973년에 출간되기도 했다. Lamine Diakhate, *Lecture libre de lettre d'Hivernage et d'Hosties noires de Léopold Sédar Senghor*, Les Nouvelles Editions Africaines, 1976, p.9 참조.

4) Léopold Sédar Senghor, *Œuvre poétique*, Seuil, 1990, p.227. 본 연구의 시 인용이나 전집의 내용의 인용은 셍고르 전집 1990년 판본을 따르며 인용할 시에는 쪽수를 기입하기로 한다.

5) Hubert de Leusse, *Des poèmes aux lettres d'Hivernage*, Hatier, 1975, p.14.

취하고 있다. 물론 이 시집은 안부를 묻는 평범한 편지 모음집이 아니다. 셍고르는 프랑스인 여성 콜레트 위베르 Colette Hubert[6]와 재혼(1957)하여 세네갈로 돌아가지만 아프리카 특유의 '우기'는 이들 부부를 잠시 떨어져 있게 했다. 우기 동안 두 연인이 주고받은 연서는 시에 가까웠고, 그녀는 이 편지글을 셍고르 시의 진화라 여겨 보관해두었다가 뒤에 출간하게 되었다: "내 시의 진화의 증거 un témoin de l'évolution de ma poésie"(p.5). 그녀는 셍고르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뮤즈이자 정신적 동반자였다. 그는 전집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 "나에게 이 시에 대한 영감을 주었던 나의 아내 콜레트에게 à Colette, ma femme, qui m'a inspiré ces poèmes". (p.5)

『우기의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기'라는 어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기'는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비의 계절 la saison de la pluie'(p.227)을 말한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이 계절은 시기를 달리하여 나타난다. 어원적으로 보자면, '우기'는 침략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 "세네갈에서, 그것은 6월에 시작하여 10월의 중반 이후에 끝난다. 이 단어는 로마 부대처럼, 볕이 안 좋은 계절 동안에 겨울을 지냈던 식민지 부대에 의해 만들어졌다."
>
> "Au Sénégal, elle commence en juin pour s'achever dans la

6) 셍고르(1906~2001)는 1980년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후로는 아내 콜레트 위베르(1925~2019)와 함께 노르망디에서 지냈다. 또한 셍고르와 콜레트 사이에는 아들 필립-마길랑 셍고르가 있는데, 셍고르는 흩어져있던 일곱 편의 비가를 모은 『장조의 비가들 Élégies Majeurs』(1979)의 「필립-마길랑 셍고르를 위한 비가 Élégies pour Philippe-Maguilen Senghor」(pp.283-291) 에서도 아내와 아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냈다.

deuxième quinzaine d'octobre. Le mot a été forgé par l'armée coloniale qui, comme l'armée romaine, *hivernait* pendant la mauvaise saison." (p.227).

오랜 시간동안 시 작업을 멈추다가 가까스로 펜을 다시 쥔 시인은 역사적인 서사 속에서 시집의 제목을 선택했다. 이러한 사실은 시인 셍고르가 여전히 네그리튀드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여러 편의 시에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그 현상은 이전의 작품에서 보이던 저항과 투쟁의 성질과는 구별된다. 그는 위의 서문에 이어 "여성의 우기 l'hivernage de la Femme"(p.227), 즉 '우기'가 초로에 든 여성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다카르 대학 케스트루트 Kesteloot 교수는 이 시집이 "아내 콜레트의 우기에 헌정된 dédié à l'hivernage de sa femme Colette"[7] 매우 감동적인 작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셍고르와 백인 아내 콜레트와의 결합[8]은 피부색이나 인종 차별에 대한 편견을 초월한 사건이었다. 사실, 프랑스는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건너온 피식민지 출신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나라였다. 셍고르도 유년 시절을 보내던 세레르 부족의 마을 조알 Joal과 디일로르 Dyilor[9]를 떠나 유럽에 체류하게 되었는데, 그가 도착한 프랑스의 수도 파리 Paris 는 『응달의 노래』에서 주지한대로 "유년의 왕국에 대한 향수 la nostalgie du royaume d'enfance"[10]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인종차별이

7) Lylian Kesteloot, *op.cit.*, p.116 참조.

8) 셍고르는 1946년에 기안 지역의 지도자 라민 기에 Lamine Guèye의 딸인 펠릭스 에부에 Félix Eboué 와 첫 번째의 결혼에서 아들 둘을 둔 바 있다. *Ibid.*, p.5 참조.

9) 조알 Joal 과 디일로르 Dyilor 는 다카르에서 30킬로 떨어져있는데, 굴이 잡히는 파디우드 Fadiouth 섬 옆에 있다. 과거에는 강대국의 침략에 시달리다가 지금은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다. 조알과 디일로르, 포펭긴은 모두 같은 해안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Lylian Kesteloot, *op.cit.*, p.15 참조.

10) Jacques Joseph Rabemananjara, *Hommage à Léopold Sédar Senghor; Homme de Culture*, Présence Africaine, 1976, p.24. 흑인작가의 작품을 싣는 저명한 출판사 Présence Africaine은 셍고

심했던 반면,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그가 배운 학문은 조상의 존엄성과 문명의 가치의 중요성을 환기시켰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유년시절부터 여러 부족을 접하면서 그들의 언어인 폴 Peuhl과 디올라 diola 와 월로프 wolof 어를 구사하게 되면서 일찍부터 "지적 혼혈 métissage intellectuel"[11]을 경험했다. 그는 낯선 땅 유럽에서 조국의 암울한 현실과 "아프리카 청년의 고독 cette solitude de l'adolescent africain"[12]을 겪으며 자신 앞에 놓인 두 문화의 수용과 한계, 그리고 모순된 현실에 대항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에 대한 심정은 아프리카 문학 연구가이자 친구인 아르망 기베르 Armand Guibert 와의 대담에서도 드러난다.

> "사실, 나의 내적인 삶은 매우 일찍이, 조상들의 부름과 유럽의 부름 사이에서, 흑-아프리카 문화와 현대 삶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이러한 갈등은 자주 나의 시집에서 표현된다."
>
> "De fait, ma vie intérieure a été, très tôt, écartelée entre l'appel des Ancêtres et l'appel de l'Europe, entre les exigences de la culture négro-africaine et les exigences de la vie moderne. Ces conflits s'expriment souvent dans mes poèmes."[13]

프랑스에서 들여다 본 조국의 피식민지 시절은 그가 겪어야 했던 최초의 '우기'였다. 더군다나 강대국에서 약소국 출신의 청년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수많은 모순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그의 시는 참

르 탄생 7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작가가 셍고르에게 헌정하는 글을 한 권으로 묶어 출판한다.

11) Hubert de Leusse, *op.cit.*, p.6.

12) Armand Guibert, *L'Homme et l'œuvre*, Présence Africaine, 1962, p.13.

13) *Ibid.*, p.143.

여적일 수밖에 없었고 투쟁과 저항의 길로 동료들을 이끌었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강대국끼리의 싸움에 징집되어 포로가 된다. 이때의 체험이 담긴 대표적인 시로 『검은 제물들 Hosties Noires』(1948)의 「캠프 1940 Camp 1940」(pp.72-75)와 「프랑스를 위해 죽은 세네갈 병사들에게 Aux tirailleurs Sénégalais morts pour la France」(pp.63-65)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다가 60년대 이후 네그리튀드 운동은 정치적 구호보다는 산적한 현실 문제로 관심을 돌리면서 아프리카 문학은 이전과는 다른 울림을 가진 작품을 내놓는다. 이는 *Une si longue lettre*[14]를 써서 세계를 놀라게 한 세네갈 출신의 여성 작가인 마리아마 바 Mariama Bâ가 말한 대로, 독립 이후의 아프리카에 쏟아진 문학 작품이 "사회적 사건들 les faits sociaux"[15]에 대해 독자를 아프리카 사회에 대한 성찰의 길로 인도했다고 말한 데서도 드러난다.

물론 『우기의 편지』도 달라진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이전의 시적 경향에서 벗어나 낭만과 서정성을 간직한다. 한편으로는 이 작품은 위베르 드 뢰스 Hubert de Leusse 가 지적한 대로 어느 "정치적이면서 정치화하지 않은 politique non politisée"[16] 작품이다. 왜냐면 시인-정치가 셍고르는 정치 행위와 작품 생활간에 긴밀한 유대감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응달의 노래 Chants d'ombre』(1945)가 세네갈-모리타니의 대표자로 선출된 직후에, 『검은 제물』(1948)과 *Anthologie de la nouvelle poésie nègre et malgache de langue française*은 B.D.S., 즉 세네갈 민주주의 연합 Bloc Démocratie Sénégal의 설립 이후에, 『에디오픽 Éthiopiques』(1956)[17]은 프랑스 해외 영토의 기본법에 대한 투쟁이 있은

14) Mariama Bâ, 백선희 옮김, 『그토록 긴 편지』, 열린책들, 2011.
15) Najib Redouane, *Francophone Littéraire du sud*, L'Harmattan, 2006, p.18.
16) Hubert de Leusse, *op.cit.*, p.8.
17) 이 작품의 제목 'Éthiopiques' 은 그리스어 "aethiops"에서 왔는데 "타버린 brûlé", "검은 noir"의 의

직후에, 그리고 『야상곡』은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후 발표되었다.[18] 사실, 그는 이후로는 시작활동과 거리를 두다가 공적인 임무를 마친 67세에 다시 창조자-시인이 되어 마지막 작품을 집필하게 된다.

2. 일상의 시

그는 개인적인 삶을 누리게 되면서 정신적으로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그의 시는 이전의 전투적이고 고뇌에 찬 분위기에서 벗어나 한가로운 일상 생활의 즐거움을 표현한다. 특히, 『우기의 편지』는 달라진 그의 여성관을 보여준다. 그가 이전의 시세계에서 취했던 여성 이미지는 관념적이거나 구원의 여신상에 가까웠지만, 이 작품에서의 '여성'은 늘 곁에서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는 아내가 보내온 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탄한다.

> "나는 사랑한다, 토요일 오후보다도 휴가보다도
> 부드러운 그대의 편지를, 그대의 푸른 꿈의 말을."
> "J'aime ta lettre, plus douce que l'après-midi du Samedi Et les vacances, ta parole de songe bleu."
>
> (「나는 그대의 편지를 사랑한다」, p.231)

시인 셍고르는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날 토요일 오후나 휴가가 절실하지만, 아내의 편지는 노동의 노곤함을 달랠 휴식 시간보다도 더 부드럽다.

미를 갖고 있다. 셍고르는 이 단어를 시집의 제목으로 삼아 아프리카 사람들의 외형적 특징과 그에 따른 편견과 아픔을 보여주고자 했다.
https://fr.wikipedia.org/wiki/L%C3%A9opold_S%C3%A9dar_Senghor.

18) Hubert de Leusse, *op.cit.*, p.8 참조.

그는 현실적 감각을 나타내는 “토요일 오후”나 “바캉스”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문명화한 산업사회의 삶을 표현함으로써 시에 대한 현대적인 감수성을 드러낸다.

> “젊은 남자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말끔하게 다려입은
> 새 셔츠처럼 푸른 빛깔에,
> 하늘과 바다와 내 꿈같은 그대의 편지.”
> “Bleue comme la chemise neuve que lisse le jeune homme
> En chantonnant, comme le ciel et la mer et mon rêve
> Ta lettre.”
>
> (「시트 위 그대의 편지 Ta lettre sur le drap」, p.241)

시는 일상과 꿈이 뒤섞이며 시적 현실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시는 편지에 적힌 안부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지 자체가 갖는 인상을 말한다. 시 속에 등장하는 “새 상의”는 전통 의상을 벗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아프리카의 현실을 의미한다. 그가 이 시집을 가리켜 *Liberté V*의 서문에서 “가장 현실적인 내 시집 mes poèmes les plus actuels”[19]이라고 말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훗날 그는 “여가의 문화 Civilisation des loisirs”[20]가 현대 생활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그는 편지 내용보다는 편지 자체의 인상을 강조할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여 시적 현실에 놀라운 통일성을 부여한다. 상의와 편지지, 그리고 하늘과 바다는 모두 같은 톤의 색을 유지하면서 시인의 몽상 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된다. 그는 아내 콜레트가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면, 그녀

19) Léopold Sédar Senghor, *Liberté V*, Seuil, 1993, p.7.
20) *Ibid.*, p.126.

의 입술을 떠올린다. 그는 그녀의 편지를 여러 물질로 변화시키며 아내를 실제적으로 느끼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대 편지가 아니면 삶은 삶이 아니리.
그대 입술은 나의 소금 나의 태양, 나의 상쾌한 공기 그리고 나의 눈."
"Ta lettre sans quoi la vie ne serait pas vie
Tes lèvres mon sel mon soleil, mon air frais et ma neige"

(「시트 위 그대의 편지」, p.241)

시인은 아내를 흰 눈으로 시각화한다. 시인의 아내는 흰 살을 닮은 눈(雪)에 이르기까지, 붉은 입술과 하얀 소금, 태양, 바람의 변모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되자, 시인은 그녀의 부재를 실감하며 "번뇌의 긴 밤 la longue nuit d'angoisse"(「그대는 말한다 Tu parles」, p.250)을 보내거나 초자연적 생물들에게 쫓기는 악몽까지 꾸게 된다.

"나는 오늘 밤 따뜻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깨어났다
내 번뇌의 밤에, 날개 달린 표범들과 수륙양서의 상어들 사이에서, […].
나는 내 생각 그대의 생각을 되새기며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다 […]."
"Je me suis réveillé sous la pluie tiède, cette nuit
Dans la nuit de mes angoisses, entre les panthères ailées les
squales amphibies, […].
Je suis resté longtemps, et ruminant mes pensées tes pensées […]. "

(「나는 깨어났다」, p.229)

이 꿈은 "연인에게서 분리된 연인의 잠 le sommeil de l'amant séparé

de l'amante"[21], 즉 '악몽 cauchemars'과도 같다. 시인은 악몽에서 깨어나면서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자각한다. 연인 콜레트가 부재하는 동안, 시인은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사이렌의 노래에 매혹된 오르페우스처럼 정신적인 위기에 처한다.

"나는 사로잡힌 나방들처럼,
그대의 편지에서 흘러나오는 사이렌 노래에 맞춰
영혼의 날개가 타버린 채 램프 주위를 우회하며 떠돈다."
"J'erre tournant, possédé comme les phalènes,
autour de la lampe tempête Me brûlant les ailes de l'âme au chant sirène de tes lettres."

(「그리고 갑작스런 도약 Et le sursaut soudain」, p.236)

그는 무의식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해낸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갈대와 청동의 목소리. 기름과 어린아이의 목소리 ta voix de bronze et de roseau, ta voix d'huile et d'enfant"(「나는 깨어났다」, p.229)와 같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부부가 차를 마시던 '오후 5시 Dix-sept heures'가 되자, 그녀의 목소리는 시인에게 말을 걸게 된다.

"지금은 다섯 시, 그대는 말할 텐데, 차를 마실 시간을. 오후 다섯 시.
부드러운 빵과, 버터같이 달콤하고, 소금같이 현명한 그대의 편지."
"C'est cinq heures, tu dirais, le thé. Dix-sept heures.
Ta lettre de pain tendre, douce comme le beurre, sage comme le sel."

(「지금은 다섯 시 C'est cinq heures」, p.230)

21) Daniel Delas, *Senghor et la musique*, Clé Internatioal, 2006, p.24.

그가 아내의 편지를 만지자마자 그녀의 부드러움을 닮은 물질들이 떠오른다: 빵, 버터, 소금. '다섯 시'라는 구체적인 정보는 두 번에 걸쳐 각기 다른 형태로 제시된다. 그것은 이 부부가 정해진 시각에 차를 마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cinq heurs/dix-sept heures". 시인은 이 단순한 어휘로 이루어진 「지금은 다섯 시 C'est cinq heures」라는 문장을 통해 독특한 시적 시간을 창조한다. 셍고르는 이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조금씩 변화시켜 사용하는데, 리듬이 취해지면서 반복된 이 단어들은 셍고르가 의도한 의미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던 행복한 시간을 영원히 남겨놓고 싶은 심리를 말해준다. 이 시집에서 반복성이 갖는 또 다른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다: J'aime ta lettre(p.231) / Ta lettre ma lettre(p.241) / Ta lettre sur le drap(p.241) / Ta lettre trémulation(p.245) / Ta lettre(p.247). 이처럼 시인이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lettre'라는 단어는 '연서' 자체가 시인의 창작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다. 그는 단어 'lettre'를 시의 제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시 속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 시집은 접속사 'et'라든가 동일한 동사의 반복적 사용이 자유로운 형식 하에 구사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커다란 시공간에서 연속적으로 행위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의 행동과 생각의 중심에는 그대 'toi'가 있다. 그는 쉬지 않고 그녀를 생각하고 그가 취하는 모든 행동은 그녀를 생각하는 데에 집중된다.

"나는 수영할 때에도 그대를 생각한다
앉으나 서나,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그대를 생각한다
대화할 때나 홀로 말할 때 그리고 침묵할 때도"
"Je pense à toi quand je nage

assis ou debout, je pense à toi le matin et le soir
Quand je parle je me parle et quand je me tais"

(「그리고 태양 Et le soleil」, p.238)

시인은 세네갈의 해변을 미끄러져간다. 그는 그녀에게 보내는 또 다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만약 내가 돌고래처럼, 남쪽의 바람처럼 서서 돌고래처럼 수영한다면
단봉낙타처럼 모래 속을 걷는다면 그건 그대를 위해서다".
"Si je nage comme le dauphin, debout le Vent du Sud
C'est pour toi si je marche le sable, comme le dromadaire."

(「그대는 무엇을 하세요? Que fais-tu?」, p.231)

그는 그녀를 생각하며 수영을 하고 모래밭을 걷는다. 그녀에게서 오는 편지는 "9월이 저물어가는 그대의 나라 ton pays au déclin de Septembre"(「그대는 몹시 그리워한다 Tu te languis」, p.249)에서 전해진다. 그는 그녀의 편지가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야생 자스민; 페레티아 아포당테라 Feretia apodanthera"(「나는 깨어났다」, p.229) 의 풀꽃 향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프랑스는 9월에도 장미가 피기 때문에 시인이 편지지를 펴는 일은 장미꽃이 피는 순간에 잎사귀 하나하나가 벌어지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나는 램프 아래서 편지를 읽고 흐릿함 속으로 미끌어져간다.
나는 꽃핀 공원과 느린 산책과 작은 초목의 향을 느낀다.
그리고 응달의 부드러운 꽃과 시클라멘의 빛을 느낀다.

나는 장미향을,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포도주 향을 본다”

“Je la lis sous la lampe et la lisse ambiguë.

Je sens le parc en fleurs, les promenades lentes et le sous-bois

Et les douces fleurs d’ombre, la lumière des clyclamens.

Je vois l’odeur des roses, l’arôme des vins vieux qui montent”

(「그대의 편지」, p.247)

그는 희미한 불빛을 발하는 램프 아래에서 아내의 편지를 읽는다. 시인은 흐릿한 불빛에 이끌려 “보들레르적인 교감 les correspondances baudelairiennes”[22]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는 꽃내음을 맡고 사람들과 마시던 포도주 내음을 보았노라고 말한다. 편지는 ‘야생 자스민’과 ‘공원의 초목의 향’과 ‘시클라멘’을 차례로 보여준다. 편지는 꽃핀 정원에 대해 말한다. 편지를 읽는 시인은 편지가 말해주는 야생 자스민과 꽃핀 공원에 대해 상상하면서 그곳에서 편지를 보낸 연인 콜레트를 상상한다. 그는 온갖 꽃이 만발한 공원의 향기를 추억한다. 그리고 상상 속의 향기를 마치 그녀의 내음인 양 느낀다. 꽃과 여성이 의미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자스민과 시클라멘과 같은 여러 가지 꽃에 대한 환기는 여러 모습으로 존재를 바꾸면서 변화해가는 여성 콜레트를 암시한다. 이는 『우기의 편지』와 함께 『검은 제물들』에 대한 의미적인 연구를 보여주는 라민 디아카트 Lamine Diakhate 의 의견대로 “여성의 변신 la métamorphose de la Femme”[23]의 아름다움을 말해준다. 이처럼 시인은 램프가 비추는 편지의 이끌림에 의해 행복한 상상 세계에 빠져들었지만, 그 순간은 금방 사라지고야 만다. 시인은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홀로 떨어져 있으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22) Hubert de Leusse, *op.cit.*, p.76.
23) Lamine Diakhate, *op.cit.*, p.11.

다음 장에서 우리는 아내의 부재 동안에 보여주는 셍고르의 행보를 따라 갈 것이다.

3. 되찾은 포펭긴에서

한편, 『우기의 편지』는 '아프리카'를 위한 찬가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아프리카는 재앙이 일어난다. 바다는 기와와 암초 위에서 포효하고 어둠은 도시를 고립시킨다.

"밤새 비가 왔다.
나는 어둠의 유황내음 나는 번개 아래서 너를 생각했다.
바다는 초록빛 기와들의 암초들 위에서 울부짖는 바다를, 거품을 내뿜었다.
우리는 회오리바람과 격랑 아래, 죽음의 천사 아래 신음했다."
"Il a plu toute la nuit.
J'ai pensé à toi sous la fulgurance sulfureuse des ténèbres.
La mer bavait sur les brisants des tuiles vertes, la mer meuglante
Sous le tennerre et la tornade, nous gémissions sous l'Ange de la mort. "

(「비가 왔다 Il a plu, p.239)

폭우가 몰아치는 동안, 바다는 포효하고 어둠은 사람들을 고립시킨다. 시인은 죽음의 천사 앞에서 울부짖으며 반항한다. 이 시는 우기가 무질서를 통해 새로운 대지를 창조하는 듯한 정경을 보여준다. 폭풍우는 자연의 입장에서 축복이다. 폭풍우는 건기로 시달린 아프리카의 대지에 습기를 주

기 때문이다.

대지를 뒤덮는 간밤의 폭풍우가 그치면 “비에 씻긴 하늘 le ciel lavé de pluie”(「그런데 오늘 아침 Or ce matin」, p.255)은 긴 해안선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는 다카르에서 업무를 보고 휴식처인 포펭긴[24]으로 돌아온다. 그는 이 시집에서 작은 휴양 도시 포펭긴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나는 은퇴했다 J’ai fait retraite」[25], 「포펭긴으로 귀환 Retour de Popenguine」과 「포펭긴의 금빛 아침들 Les matins blonds de Popenguine」. 고향 조알 Joal이 유년의 삶을 대변하는 장소라면, 포펭긴은 삶의 휴식처를 의미한다. 시인은 포펭긴의 상공에서 바다를 내려다본다.

> “포펭긴으로의 귀환, 오늘 일요일 오후의 나른한 아름다움 속으로..
> 나는 ‘상쾌한 강’과 수직 방향의 프레스킬 반도를 긴 시선으로 껴안는다.[…].
> 고레섬의 집들이 태양빛으로 환할 때
> 헬리콥터는 붉은 금빛 바다 위로 갈매기처럼 떨면서 내려간다.”
> “Retours de Popenguine, dans la langueur beauté de ce Dimanche après-midi..
> A la verticale de la Rivière fraîche, d’un long regard j’embrasse la Presqu’île.[…].

24) 포펭긴 Popeinguin 은 세네갈의 아름다운 해안도시로 카톨릭 주민들이 많다. 프레스킬 뒤 캅 베르 la presqu’île du Cap-Vert와 신느-살룸 le Sine-Saloum 사이에 위치하며 수도 다카르와 70킬로의 거리에 있다. 15세기 중엽 포르투갈인이 점령했으며, 토착민인 레부족(族)이 밀려난 뒤 18세기말까지 대서양 노예무역의 주요한 중계항이었다.
https://fr.wikipedia.org/wiki/Petite-C%C3%B4te_(S%C3%A9n%C3%A9gal).

25) 실제로 셍고르는 “문학활동에 더 잘 전념하기 위해 pour mieux s’occuper de ses activités littéraires” 정치에서 내려오게 된다.
Issiaka Ahmadou Singare, *L’œuvre poétique de Léopold Sédar Senghor: esthétique de la reception, procès de la création*, Université de Cergy Pontoise, 2012, p.64.

L'hélicoptère descend en virant comme la mouette

Sur la mer d'or vermeil, quand au soleil s'allument les maisons de Gorée."

(「포펭긴으로의 귀환」, p.235)

그는 세네갈의 앞바다를 내려다보며 침략의 역사를 지닌 해안의 마을을 차례대로 바라다본다. 옛 항구인 리오 프레스코는 "상쾌한 강 la Rivière fraîche"[26]의 옛 지명으로, 침략자인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다. 그리고 가장 아픈 이름을 가진 고레섬 Île de Gorée의 붉은 집들이 보인다. 시인은 고레섬의 붉은 지붕색이 자신의 상처와 같은 색이라고 느낀다: "알마디 갑의 화살 아래 내 심장은 피흘린다 saigne mon cœur sous la flèche des Almadies[27]"(「그대 저녁 내 저녁」, p.234).

또한 앞바다를 향해 돌출한 캅-베르 Cap-Vert 는 민족의 정서를 간직한 곳으로, 세네갈의 또 다른 뛰어난 시인 비라고 디오프 Birago Diop[28]가 발굴한 민담 *Les Mamelles*이 유래한 지역이기도 하다. 셍고르와 동향 출신의 시인 비라고 디오프는 조국의 대지에서 유래한 이야기를 널리 알려 그들의 대지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셍고르는 오랫동안 강대국의 식민지였던 그곳을 경건하게 부르며 조국 아프리카의 아픔을 위로한다.

---

26) Hubert de Leusse, *op.cit.*, p.40.

27) '알마디 Almadies'는 'La point des Almadies'가 본래 이름으로 알마디 곶을 말한다. '알마디'는 사전적으로는 '나무 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28) 비라고 디오프는 세네갈의 구비문학에 관심을 갖고 민담이나 전설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Les Contes d'Amadou-Koumba*(Paris, Fasquelle, 1947)와 후속작 *Les Contes Nouvelles d'Amadou-Koumba* (Présence Africaine, 1958)을 남겼다. 셍고르는 아마두 쿰바에 관한 전설을 아래의 저서에서 소개하고 있다.
Léopold Sédar Senghor, *Anthologie de la nouvelle poésie nègre et malgache de langue française*, pp.136-143.

"나는 야생 오리와 함께 명상에 잠긴다

나는 너를 생각한다. 포펭긴 뤼피스크와 투밥-디아로, 조알 포르투달 팔마랭

백인들의 요새들을."

"Je médite avec les anards sauvages

Je pense à toi. Popenguine Rufisque et Toubab-Dyalaw, Joal Portudal Palmarin

Les noms splendides des forts blancs."

(「해변에서 흔들리며 Sur la plage bercé」, p.238)

셍고르는 이 지명들로부터 조상들의 삶과 신비를 느꼈고, 그런 조국을 평생 사랑했다. 자신의 이름 '셍고르'도 포르투갈식 이름이다.

"나는 '우리 포르투갈 조상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내 성과 이름과 내 고향 조알이 내 혈관 깊은 곳에서 '소다드' 향수를 노래하는 핏방울들은 말할 것도 없이 포르투갈어이기 때문이지요."

"Je dis 'nos ancêtres portugais', car mon nom de famille et le nom de mon village natal, *Joal*, sont portugais, sans oublier les gouttes de sang qui, au fond de mes veines, chantent la nostalgie des *saudades*."[29]

일찍이 아프리카를 침략한 노르망디인들을 비롯해 서양 열강은 침략을 일삼았고 아프리카는 자주 침략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는 드디어 해방된 "세네갈의 작은 천국 Le petit paradis du Sénégal"[30] 포펭긴에서 위안을

29) Léopold Sédar Senghor, *Liberté V*, Seuil, 1993, p.283. 전집에서 이탤릭체로 써진 'saudades'는 포르투갈어로 '향수'라는 의미다.

얻고 “아름다운 우기 le bel hivernage”[31]를 노래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세레르로 포펭긴으로 은퇴했다
태고의 원소들로 돌아와
나는 물에 소금에 바람에 모래에 현무암에 그리고 밀밭에게 말을 건넨다”

“J’ai fait retraite à Popenguine la Sérère
Retourné aux éléments primordiaux
A l’eau je dis au sel, au vent au sable, au basalte et au grès.”

(「나는 은퇴했다 J’ai fait retraite」, p.250)

그곳은 헬리콥터와 잠자리가 조화를 이루고 “말리 Mali 의 공주들”(「젊은 태양의 인사 Le salut du jeune soleil」, p.258)이 박하와 공존하고 태양이 모두에게 차별없이 손짓하는 곳이다. 그곳은 숲을 헤쳐 날아다니는 티티새 des merles, 습지에서 사는 노랑 왕관새 gonoleks(p.246), 야생박하 les menthes sauvages(p.250), 토종 잠자리들 tramiae basilares(p.257), 열대관목 프로조피 des prosopis(p.256)가 울창한 곳이다. 그곳은 현무암과 용연향, 산호와 카누들, 야생 버찌, 대추나무 jujubier, 두루미, 해우 des lamantins, 야생 오리들 les canards sauvages(p.234)이 뛰놀고, 울창한 타마린 나무 tamarine, 망고 les Mangues, 마니옥 잎사귀 manioc(p.240), 종려나무, 떡갈나무, 번석류 열매 고야브 goyave(p.231)가 자라는 곳이다. 셍고르는 이 모든 아프리카의 구성원들을 위해 “조국에 대한 찬가 l’hymne à la patrie”[32]를 부른다.

---

30) Jean-Marie Domenach, *Hommage à Léopold Sédar Senghor*, Présence Africaine, 1976, p.196.
31) Hubert de Leusse, *op.cit.*, p.23.

"내 얼마나 그대를 그토록 강렬하게 생각하는지! 그건 고통의 찬란함
이다
마치 내 가슴 한가운데 해파리의 불꽃처럼.
절망에 대항하는 내 유일한 안식처, 유년의 왕국이여."
"Parfois je pense à toi si fort! c'est splendeur de douleur
Comme flamme de physalie au plein de ma poitrine.
Contre le déséspoir, mon refuge mon seul, le royaume d'Enfance."

(「그대의 편지」, p.247)

조알 Joal을 떠나 포펭긴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생애는 "성배-네그리튀드 Graal-Négritude"[33]의 탐색을 찾아나서는 데에 할애된 거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또 다른 네그리튀드 문학의 위대한 시인이자 평생의 동지인 에메 세제르 Aimé Césaire의 *Cahier d'un retour au pays natal*[34]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 보여주는 여정과도 같았다. 그리고 셍고르가 유년 시절에 맛본 철없고 불완전하던 행복은 독립을 쟁취하여 포펭긴으로의 '귀환'이 가능할 때에야 비로소 완성되었다.

Ⅲ. 우기 이후

'우기'가 끝나면 프랑스에 체류 중인 아내 콜레트가 돌아올 것이다. 시인은 그녀와의 재회를 기다려왔다. '우기'는 1945년작 『응달의 노래』에서도

32) Pius Ngandu Nkashama, *op.cit.*, p.34.
33) *Ibid.*, p.7
34) Aimé Césaire, *Cahier d'un retour au pays natal*, Présence Africaine, 1939.

등장한다. 셍고르는 이 '우기'를 '고된 우기'로 표현했다.

"고된 우기 이후 수확이 오리라, 그리고 그대 나의 연인은 돌아오리라."
"Que viendra la moisson après l'hivernage pénible, et tu reviendras mon Aimée."

(『응달의 노래』, 「휴가 Vacances」, p.43)

'우기'는 조국의 시련을, 그리고 우기 이후의 '수확'은 조국의 독립을 의미했다. 따라서 '우기'는 단순히 특정 날씨가 지속되는 기간을 지칭하기보다는 힘든 시련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시적 소재다. 그는 이 무렵부터 '우기'가 주는 고통을 감내했다. 우기는 영원히 순환하고, 시인은 우기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그대는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나는 우기의 끝에서 그대를 기다릴 거야"
"Tu viendras, et je t'attendrai à la fin de l'hivernage"

(「그대는 몹시 지쳐있다 Tu te languis」, p.249)

가공할 우기가 끝나고 남서풍 "알리제"가 오면 그의 '소페'[35]는 돌아올 것이다. 지난 날 지붕에 닥친 "남서쪽의 세찬 바람 vents violents du Sud-Ouest"(「나는 그대의 편지를 사랑한다」, p.232) 은 천지를 뒤흔들다가 마침내 사라져버렸다. 시인은 무수한 별이 박힌 아프리카의 밤하늘을 가로질러 우주 저 너머를 바라본다.

35) '소페 Sopé' 는 애인을 부르는 애칭이다. 이는 연인을 가리키는 'chérie'와 같은 뜻인데, 동사 'sopa'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Hubert de Leusse, *op. cit.*, p.14.

"우주의 주인 그대여, 그늘진-조알 아래 나를 쉬게 하라
꿈이 살랑거리는 유년의 왕국에 다시 태어나게 하라"
"Toi seigneur du Cosmos, fais que je repose sous Joal-l'Ombreuse
Que je renaisse au Royaume d'enfant bruissant de rêves"

(『야상곡』, 「자정의 비가 Élégies de Minuit」, p.200)

"유년의 왕국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그의 소망은 "유년의 왕국에 시를 되살리기 위한 pour ressusciter le poème au royaume d'Enfance"(「밤 이전에 avant la nuit」, p.244) 것이다. 유년 시절과 그때부터 비롯된 시에 대한 사랑은 셍고르의 시에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두 가지 꿈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자크 슈브리에 Jacques Chevrier 는 셍고르의 시적 기원이 네그리튀드라고 말하면서 그의 네그리튀드는 두 가지 청원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가치관에서의 뿌리내리기 enracinement dans les valeurs du passé"요, 다른 하나는 "우주의 세계에 대한 공헌 contribution au monde de l'universel"[36]이라고 말한다. 즉, 셍고르는 한쪽에서는 되찾아야 할 아프리카를, 다른 한쪽에서는 유년시절부터 꿈꾸던 현실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 의식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네그리튀드와 문화적 보편성을 역설하는 *liberté III*[37]에서 미래는 지리적 한계를 벗어난 문명과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네그리튀드'는 그 출발점이었다.

"언제나 거울들을. 지금 네그리튀드와 고대. 경이적이다.[…].
내게 말하라, 누가 말의 비밀을 훔쳤는지?; 동굴의 바닥에서, 형태들의

36) Jacques Chevrier, *Littérature nègre*, Armand Colin, 1984, p.60.
37) 이 책은 1961년과 1974년 사이에 발표한 작품을 모은 저서로 『우기의 편지』보다 4년 뒤인 1977년에 출간되었다. 셍고르는 이 저서에서 여러 흑인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미래의 아프리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Issiaka Ahmadou Singare, *op.cit.*, p.87 참조.

진실을 훔쳤는지를”

“Toujours Miroirs. Or la Négritude et l’Antiquité. Prodigieux.[…].

Dites-moi, qui a volé le secret de la Parole; au tréfonds des cavernes, la vérité des formes?”

(「언제나 거울 Toujours Miroirs」, p.253)

그는 우주 저 너머를 말해줄 “삶의 말의 창조자 le créateur des paroles d vie”[38]가 되고자 한다.

“왜냐면 그녀, 시의 소녀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녀에 대한 탐색이 나의 정열이다 Car elle existe, la fille Poésie. Sa quête est ma passion”

(「나는 다시 읽는다 Je repasse」, p.235)

그는 ‘시를 소생시키기 위해’ 시의 소녀인 ‘그녀’를 탐색한다. 이와 같은 셍고르의 연금술적인 상상력에 대해 그와 동향인 연구가 술래이만 바시르 디아뉴 Souleymane Bachir Diagne 는 셍고르가 프랑스에서 상징주의 문학에 접하면서 시인 랭보에 대해 심취했다고 말한다. 사실, 셍고르는 아르튀르 랭보 Arthur Rimbaud가 유럽을 등지고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와 예멘의 삶을 택했던 사실, 그리고 “랭보적인 언어의 연금술 l’alchimie du verbe rimbaldien”에서 “랭보의 흑인성 une ‘négritude’ de Rimbaud”을 인지했다[39]. “미증유의 풍요로움 les richess inouï”[40]을 꿈꾼 랭보처럼, 셍고

38) Hubert de Leusse, *op.cit.*, p.71.

39) Souleymane Bachir Diagne, *Léopold Sédar Senghor: L’art africain comme philosophie*, Riveneuve, 2007, p.73 참조.

40) Arthur Rimbaud, *Vies I dans Œuvres Complètes* par Pierre Brunel, La Pochothèque, 1999, p.464.

르도 “미증유의 단어들 des mots inouïs”(「언제나 거울들을 Toujours “Miroirs”」(p.253)을 알아내고자 애썼던 것이다. 다만, 셍고르와 프랑스 시인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에게는 되찾아야 할 대지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시인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었다. 앙드레 쥘리엥 므벰 André Julien Mbem 은 셍고르부터 벤 오크리 Ben Okri 에 이르기까지 흑인문화와 세계 문화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셍고르의 시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세레르 문화에 대한 셍고르의 친자관계는, […], 시인이 꿀을 얻기 위해 모든 문화에 열려 있도록 한다. 장소들, 인물들, 은유와 상징들은 그의 시에서 모든 문화에 속한다.”
>
> “La filiation naturelle de Senghor à la culture Sérère, […], dispose le poète à s’ouvrir à toutes les cultures pour en reueillir le miel. Lieux, personnages, métaphores et symboles sont de toutes les civilisations dans ses poèmes.”41)

그의 네그리튀드 운동은 소수의 흑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염려 souci de l’homme.”42)에서 비롯된 실천이었다. 그는 외로운 투쟁을 벌여야 했지만 끝내 조상의 대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

> “신이여! 내가 그대를, 그대의 목소리를, 그대의 떨리는 빛의 향기를 재발견하게 되길.”

---

41) André Julien Mbem, *La quête de l’Universel dans la littérature africaine*, L’Harmattan, 2007, p.79.

42) Léopold Sédar Senghor, *Anthologie de la nouvelle poésie nègre et malgache de langue française*, p.1.

"Dieu! que je te retrouve, retrouve ta voix, ta fragrance de lumière vibrante."

(「젊은 태양의 인사 Le salut du jeune soleil」, p.258)

그는 아프리카를 향해 울리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자 기원하고 빛의 향기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소리와 빛과 향기를 울리는 새로운 목소리는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아프리카의 미래를 향해 울려퍼진다. 그는 우기 이후에 돌아올 아내 콜레트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꿈꾼다. 그리고 "고된 우기" 이후에 떠오르는 태양이 아프리카를 새롭게 비추기 시작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우기의 편지』가 이전에 발표한 시집과는 다른 시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찰하고자 했다. 우기동안 시인 셍고르는 아내 콜레트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다시 한 번 세상과 소통하게 된다. 그는 때로는 아내의 편지를 통해 지나가버린 청춘을 회상하고 때로는 한없이 상상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시인은 그 세계에서 스스로의 삶을 성찰한다. 그리고 시의 원천이던 유년의 왕국과 네그리튀드에 대한 기억은 시를 소생시키고자 하는 시인의 열망에 불을 지폈다. 두 연인의 서신 왕래는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을 가져왔고, 그 기적은 일상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런 점에서 이 편지모음집은 시인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시적 메시지다. 두 연인의 편지는 자전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꿈과 사랑과 기다림을 말할 수 있었다. 사실, 시는 '그녀'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나'의 이야기가 더 많다. 그래서 '편지'는 밖으로 터져 나온 독백이었으며, 마침내 그의 아내의

말대로 '진화된 시'를 쓰게 된다. 그 결과, 그는 그에게 시적 영감을 불어넣어준 아내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다. 『야상곡』에서 독립에 대한 흥분과 감탄을 말하던 시는 10여 년 뒤의 『우기의 편지』에서는 일상의 감미로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로 변모했고, 그가 이전의 그의 작품이 '미의 전형'으로 간주하던 '여성' 이미지는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성상이 되었다. 그리고 젊은 날 시인에게 저항과 투쟁을 요구하던 '잃어버렸던 조국'은 인간과 동식물을 위한 '되찾은 삶의 터전'이 된다.

네그리튀드의 선구자이던 셍고르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그는 또 다른 그리오 Griot 가 되어 고향 조알에서부터 지켜온 숭고한 열정으로 아프리카의 미래를 노래하고 일상을 노래한다. 그는 비가 그친 대지를 산책하고 춤춘다. 그리고 우기 이후 재회할 아내를 기다린다. 『우기의 편지』는 이전의 시학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기의 노래들은 고통의 드라마를 사랑의 드라마로 만들었다. 두 연인의 이별과 재회의 순환구조 속에서, 우기의 찬가는 검은 색 대륙을 검게 빛나는 대륙으로 만들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Léopold Sédar Senghor, *Œuvre poétique*, Seuil, 1964, 1973, 1979, 1984 et 1990.

2. 논저

Mariama Bâ, 백선희 역, 『그토록 긴 편지』, 열린책들, 2011.

Aimé Césaire, *Cahier d'un retour au pays natal*, Présence Africaine, 1939.

André Julien Mbem, *La quête de l'Universel dans la littérature africaine*, L'Harmattan, 2007.

Armand Guibert, *Léopold Sédar Senghor, l'homme et l'œuvre*, Présence Africaine, 1962.

Arthur Rimbaud, *Vies I dans Œuvres Complètes de Rimbaud* par Pierre Brunel, La Pochothèque, 1999.

Birago Diop, *Les Contes d'Amadou-Koumba*, Paris, Fasquelle, 1947.

Daniel Delas, *Senghor et la musique*, Clé Internatioal, 2006.

Hubert de Leusse, *Des poèmes aux Lettres d'hivernage*, Hatier, 1975.

Jean-Marie Domenach, *Hommage à Léopold Sédar Senghor*, Présence Africaine, 1976.

Jacques Joseph Rabemananjara, *Hommage à Léopold Sédar Senghor*, Présence Africaine, 1976.

Lamine Diakhate, *Lecture libre de lettres d'Hivernage et d'Hosties noires de Léopold Sédar Senghor*, Les Nouvelles Editions Africaines, 1976.

Léopold Sédar Senghor, *Anthologie de la nouvelle poésie nègre et malgache de langue française*, P.U.F., 1948, 5e édition, 1985.

_____, *Liberté V*, Seuil, 1993.

_____, *Liberté III*, Seuil, 1977.

Lylian Kesteloot, *Comprendre les poèmes de Léopold Sédar Senghor*, Editions Saint-Paul, 1986.

Najib Redouane, *Francophone Littéraire du sud*, L'Harmattan, 2006.

Pius Ngandu Nkashama, *Comprendre la littérature africaine écrite en langue française*, Edition Saint-Paul, 1979.

Souleymane Bachir Diagne, *Léopold Sédar Senghor: L'art africain comme philosophie*, Riveneuve, 2007.

Issiaka Ahmadou Singare, *L'oeuvre poétique de Léopold Sédar Senghor: esthétique de la reception, procès de la création*, Université de Cergy Pontoise, 2012.

3. 인터넷 사이트

https://fr.wikipedia.org/wiki/Petite-C%C3%B4te_(S%C3%A9n%C3%A9gal)

https://fr.wikipedia.org/wiki/L%C3%A9opold_S%C3%A9dar_Senghor

<Abstract>

Senghor's poetry after the independence of Senegal: around the *Letter of the rainy season*

Hwang, Mee-young

In the 1950s, most of Africa's countries became independent, and Senghor, a pioneer of Negritud literature, returned to his homeland of Senegal. With the exception of his collection of poems, "The Night Song" (1961), he became a politician for a long time, writing mainly political essays and literary reviews. It is not until he is 70 years old that he returns to his daily life after a long political career.

This study examines the poetry world of Senghor's late-year "Letter of the Rainy season" (1973). This collection of poems is based on his letter to his wife, who is staying in France to avoid Africa's unique rainy season. Most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this collection of poems can be found in the pursuit of daily happiness. "Women" had an idealized image in previous works, but in this work, it becomes a lover image that evokes the present life. Despite his wife's absence, he falls into a sweet world of imagination, reading the letters from her. As a result, this collection of poems maintains an overall romantic and lyrical atmosphere. In fact, he spent his entire life engulfed in a public sense of

duty and a desire for poetic inspiration. And 'The Kingdom of Childhood' and 'Lost Africa' were his important sources of poetic inspiration.

He looks down at the island of Gore and the peaceful coastal villages on a plane returning to Popengin, a resting place after a hard work. They were the victim of the colony which was great powers in the past, and the poet Senghor constantly honors his country. He is enthusiastic about the beautiful appearance of Africa that was revealed after the rain stopped. He dreams of reuniting with his wife there, swims alone, falls into meditation, and spends a happy time there. Above all, this collection of poems reveals the mysterious relationship between the Senghorian communion, the unity of man and the universe. Rainy season is no longer an ordeal. Under his pen, Africa is recreated in the language of poetry, and the couple in the beautiful rainy season is not white or black, but are just two lovers. The poet Senghor remains a happy poet who sings about the beauty of everyday life with simple and profound emotions.

Key words : Senghor, rainy season, Letters, Africa, Popengin..

황미영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강사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30호실 불어불문학과
전자우편: saphoe@hanmail.net

이 논문은 2021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21년 3월 3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1년 4월 6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